지역 소식통

## 정읍시, 식품소재 · 반가공 산업 육성 23일까지 모집

정읍시가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식품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은 완제품을 제외한 중간재로서, 국산 농?축?임산물을 활용한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한다. 국산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식품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에 선정되면 개소당 7억원에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식품소재의 생산, 유통, 상품화를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지원

정읍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축 민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농막이나 임시창고처럼 컨테이너 또는 유사 구조물의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민원인이 설계도면을 작성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도면을 그려주고 있다. 연평균 약 100건의 민원이 이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가설건축물은 축조 과정에서 정해진 설계도면이 필요하지만, 도면 작성은 일반 시민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절차다.

시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행정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어구보증금제 본격 시행

### ■ 통발어구 반납시 개당 1000~3000원 어구 보증금 환급

부안군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며 유령어업의 온상이 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서는 처음으로 어구보증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모두 마치고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로 조업 중 폐기나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증금액은 스프링 통발이 1,000원, 원형이나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은 3,000원으로 어업인들이 폐통발어구를 반납할 경우 반납 어업인에게 보증금액을 지급하고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폐어구 1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회수촉진 포인트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어구보증금제의 시행을 위해 부안수산업협동조합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어업인들의 접근이 쉬운 격포 국가어항 내에 폐어구를 수거·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에 상주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하여 폐어구의 차질없는 수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어구보증금제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은 만큼 어업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관련 교육과 홍보도 힘쓰겠다"면서"어업인들도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폐어구를 투기 및 방치하지 말고 회수하여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임시 공용터미널 운영 시작

### 2027년 말 완공 목표

고창군이 임시터미널 운영에 들어가면서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 본격화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7일 오후 임시터미널 운영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운전기사들의 불편사항을 챙기며 '터미널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빠른 완성을 약속했다.

이날 새벽 0시10분 인천공항행 버스를 시작으로 고창군 관내 버스는 기존 터미널과 500m(도보 5분)가량 떨어져 있는 임시터미널(고창읍 하나로마트 뒤, 목화예식장 옆)에서 승·하차가 이뤄지고 있다.

고창군은 한달 전부터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이장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터미널 이전내용을 알리면서 주민 혼선을 최소화 했다.

임시터미널에는 매표소와 화장실, 안락한 대합실이 마련돼 있고, 여름철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에어컨과 양심냉장고가 설치되며 무더위 쉼터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시에 기존 터미널 철거공사도 이달 중 시작된다. 현재 터미널 매표소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이 마무리 중이고, 터미널 철거 공사 중 먼지와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림막도 설치된다.

앞서 공개된 新터미널 조감도에선 1층에는 버스승강장과 대합실이, 2층에는 판매시설과 각종 식당들이 자리하고, 3층에는 청년문화공간과 기업체들의 회의실이, 4층에는 소규모컨벤션 시설이, 5층과 옥상에는 주차장이 들어선다.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천 미로분수 물놀이장, 19일 개장

정읍시가 여름철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읍천에 조성한 '미로분수 물놀이장'이 7월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미로분수는 지난해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시기동 225-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시설은 물놀이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거울연못 등의 연출이 가능한 복합형 바닥분수로,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름 명소로 기대를 모은다.

정식 운영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7월 5일부터 6일까지, 12일부터 13일까지 두 차례 시범운영을 통해 시설 점검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다. 매 정시마다 40분간 물놀이가 진행되고, 이후 20분간 휴식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 기간 동안에는 음악분수는 중단된다.

시는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임시 그늘막과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회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 총 20건 의안심사 등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본회의 소관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운영위원회 소관 △고창군의회 기본조례 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선덕)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임정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선덕) 등 8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임종훈) △고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오세환) △고창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이경신) 등 8건, 총 20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이루어지게 된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새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새로운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만 의원, 오세환 의원, 최인규 의원, 이경신 의원, 차남준 의원 등 5명,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종훈 의원, 임정호 의원, 조규철 의원, 이선덕 의원 등 4명, 총 9명이 선임됐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로, 추경 예산이 꼭 필요한 분야에 효과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 부안군, 내년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26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7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부안군은 2019년 백산 회포마을을 시작으로 동진 장등, 진서 구진, 줄포 원대동, 하서 평지, 상서 우덕·봉은, 백산 대산 등이 선정되어 사업완료 및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부안읍 모산마을로 노후주택 비율과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높아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주거, 위생, 안전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 마을 생활인프라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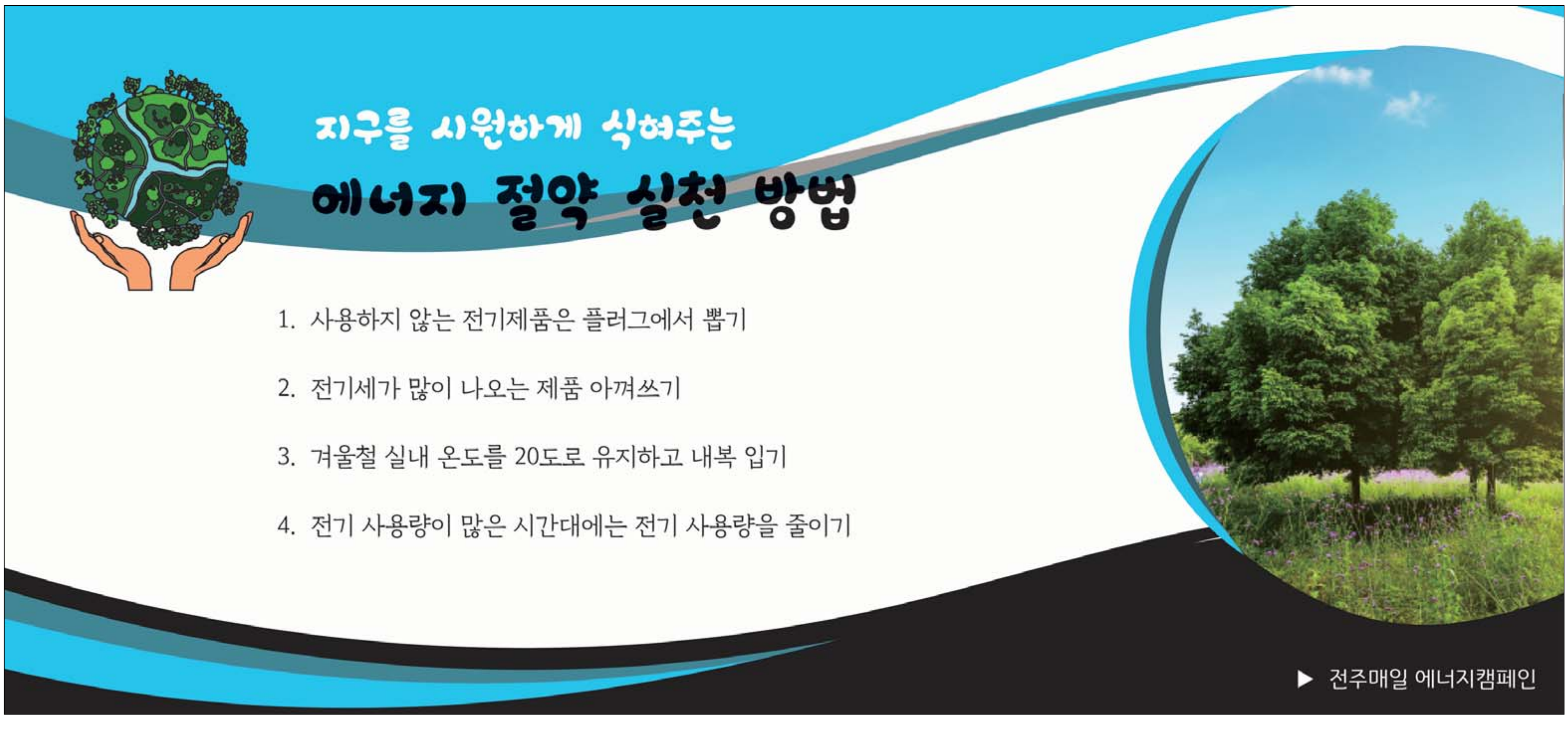
올해 부안읍 모산마을의 선정으로 부안군은 국비 13.5억 원, 지방비 5.4억원 등 총 2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향후 4년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생활 기반시설(상하수도, 배수로, 도로 등) 개선 △CCTV, 가로등 등 안전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종합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7년 연속 공모 선정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여름철 산림 재해 피해 사전예방 추진

고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사전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산림피해 사전예방 사업으로 임도 배수로 및 노면 정리, 쓰러진 나무 제거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도 제거해 주택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군은 오는 10월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임목 벌채지, 임도 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위험 우려지에 대해 우기철 집중점검하고,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응급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은 "산사태와 같은 산림 재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면 안정성, 계류 상태, 토사유출 여부 등 지속적인 예찰 및 점검을 통해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